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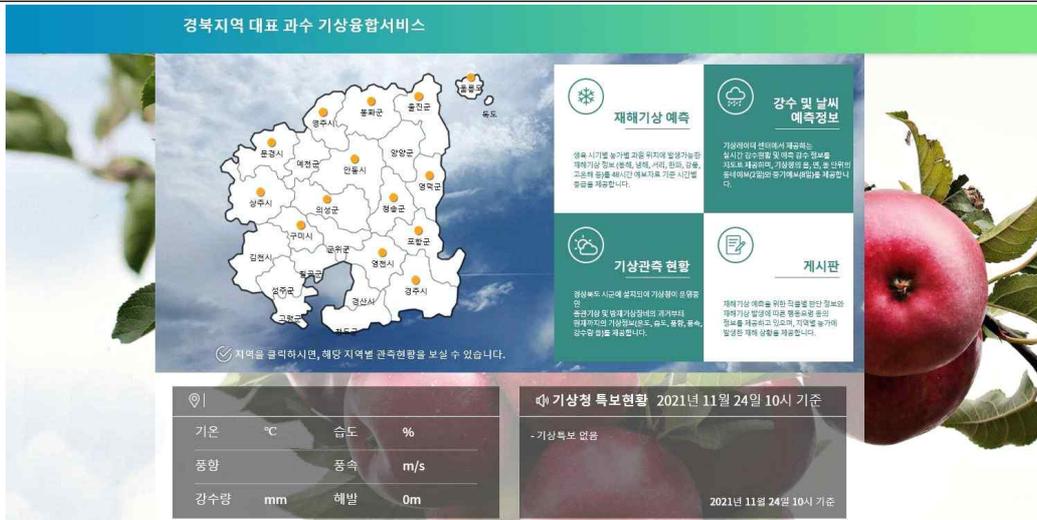
보도 일시	2022. 4. 20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4. 20.(수) 10:00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 장진호 (053-282-0160)
		담당자	주무관 이보연 (053-282-0164)

기상융합서비스로 과수 피해 최소화 기대

- 대구지방기상청, 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착수 -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은 4월 11일(월)에 경상북도청, 경상북도 농업기술원, 경북 7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, 국립 안동대학교와 협업하여, ‘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’ 사업에 착수했다.
- 대구지방기상청은 2020년부터 상주시·의성군·안동시·영천시의 대표 과수 6종(△사과 △배 △복숭아 △포도 △자두 △감)의 재해기상*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등급(△주의 △경계 △위험) 알림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다.
 - * 재해기상(8종): 동해, 냉해, 고온해, 서리, 한파, 호우, 대설, 강풍
 - ※ 동네예보 대비 약 25배의 고해상도 예측모델 사용
- 서비스 사용자는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기상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서비스를 희망하는 지역과 과수 및 기상재해를 선택하여 모바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.
 - 또한, 과수농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각 과수별, 재해 기상별 행동대응요령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.
- 올해는 과수 재해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문경시·영덕군·칠곡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. 또한, 수요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방안 공모전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,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.

-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.
-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기상과 농업을 융합한 예측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북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- 붙임 1. 기상융합서비스 웹/모바일 서비스 제공 화면(예시)
2. 기상융합서비스 착수보고회(4.18/대구지방기상청)



웹 서비스 홈페이지



모바일 앱 서비스

